

열람용
(특별 열람실)

국통정 79-12-1596

統一問題理論

依存理論과 第三世界の 社會變遷

中南美와 韓國

보관용
(관리과)

國土統一院

- I. 이 책자는 國土統一院의 政策調査研究計劃에 依據한 特殊課題 研究報告書임
II. 收錄된 內容은 刊行處의 意見을 받드시 反映하는 것은 아니며 統一問題에 關聯된 研究에 資料로 提供되는 것임.

依存理論과 第三世界社會變遷

— The Dependency Theory and Social Change in the
Third World —

研究執筆責任 金 伍 東

(略歷) 韓國外國語大學 西班牙語科 卒業 (1961)
美「후로리다」大學 政治學 碩士 (1966)
美「캘리포니아」大學 政治學 博士 (1974)
國際問題調査研究所 研究委員 (1979—現在)

刊行責任 呂 錫 昊 (政策企劃室 補佐官)

國土統一院 政策企劃室

要 約

広範한 第三世界の 社会變遷은 現今에도 研究의 対象이 되고 있다. 第三世界圈에 屬하는 国家群의 指導人事나 國民들도 變化하는 環境内 自身들의 方向感覺을 잃지않기 爲해 社会變遷을 잘 說明해 주는 理論에 귀를 기울여 왔다. 變化의 奴隸가 될 것이 아니라 主人이 되자는 의도가 第三世界の 社会變遷을 根拠로 하여 産出된 理論의 目的이다.

近接方法이 相異한 二種의 理論을 檢討했다. 먼저 依存理論은 史學理論의 一種으로 第三世界の 植民史에서부터 行進해온 抵流를 발체하여 現今의 社会變遷을 說明하고 있다. 中南美를 中心으로 開發된 同理論은 一國의 經濟活動은 國際經濟 秩序에 制約을 받는다고 前提한 다음, 植民史에서 盛況이 이루어 졌던 「植民国-被植民地」의 交換關係를 國際重商主義와 편협한 原資材 生産間의 依存關係로 分析했다. 上記한 依存關係는 植民地가 獨立國으로 變化하고, 國際經濟秩序가 重商主義에서 産業資本主義로 變化함과 同時 第三世界の 工業化 努力으로 依存樣狀이 변모하게 되었다. 植民當時와 같이 軍事力에 基礎를 둔 独占權 行사가 아니고, 現 産業資本體制下에서는 市場을 中心으로 交易의 自由化와 더불어 多国籍企業이나 産業資本国이 많은 株를 所有하고 있는 國際金融機構를 通하여 依存關係를 高질화시킨다는 것이다. 이런 依存關係의 結果는 資本과 技術이 先進國에 集中하게 되어 第三世界와 先進國間의 發展의 差異가 縮少되지 않고 점점 더 멀어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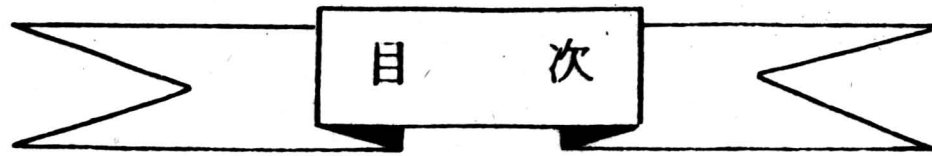
다는 解説이다. 上記한 國際依存關係는 第三世界の 社会内部에도 衝擊을 주어 輸出入 業者를 위주로 한 外勢의 協助者가 必然히 탄생하게 되고 이들의 利益은 内國資本形成이나 民族主義的 感情이나 活動에 相反된다는 前提를 했다. 特히 政治不安의 動因은 上記한 勢의 相反要素에 依拠하여 發生된다고 命題를 提示한 것이다. 이 理論이 含蓄하고 있는 點은, 外國勢力에 피해를 많이 입은 第三世界の 史的資料를 가지고 自主性和 民族主義의 成長을 基調로 하여 開發시킨 理論이라 할 수 있겠다.

한편 社會學的 近接方法을 利用한 美國의 「엠퍼」教授의 開發理論은 現 美蘇의 對立關係를 勘案하고, 第三世界の 國際政治的 重要性은 蘇의 잠식의도가 좌절된다는 點이 前提되어 있다. 方法으로는 第三世界の 安定으로 共產主義가 利用해 왔던 要因, 즉 不安定을 除去하는데 力點이 주어졌다. 그러나 開途國立場에 있는 第三世界 國家群은 恒시 變遷을 피할길이 없고, 學者의 挑戰은 어떻게 發展을 推進하며 秩序를 維持하는 社會制度構想이라고 규명했다. 同教授는 六個의 變數를 使用하여 發展모형을 提示한 것이다. 六個의 變數는 2個의 社會的 次元(Societal level)의 變數와 同變數와 相應하는 政治的 2變數로 나누어져 있고 이들을 連結지우는 中間變數 2를 使用했다. 社會的 變數는 規範變數, 即 “衡平”을 提示했고 構造變數는 「엘리트의 安配」로 規定됐다. 政治分野에서 上記變數와 相應되는 變數를 먼저 規範的 次元에서는 “決定者에 通行路 原則”(Principles of access to decision-making)과 構造的 次元에서는 「政治参与」로

밝혔다. 上 四個變數를 連結지우는 要素를 “政治情報”와 “強制力발
동”으로 밝힌바 있다. 同理論의 骨命題는 「엘리트의 衡平한 安配가
秩序있는 發展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上記한 두 理論의 大前提는 韓國의 立場에서 全部받아 들여져야할
地境이다. 韓國도 自主性を 確立하는 것이 當然할 것이며, 安定을 도
모하여 共產勢力의 잠식 機會를 提供해도 안된다. 따라서 어떤 한가
지 理論을 채택하고 다른 理論을 거부할 수 없는 立場이다. 우리가
使用할 수 있는 部分을 골라서 適用하든지 아니면 兩前提를 統合하
여 새 理論을 產出하는 것이다. 本稿에서는 前者의 方法을 채택하여
우리가 開發政策을 起案하는데 考慮事項을 제시했다. 即,

- ① 共同體에 準하는 規範과 構造의 確固한 보호 및 構築
- ② 社會와 個人의 同一性을 (identity) 高調시키는 社會規範과 構
造의 構築과 이의 連結性 (continuity)
- ③ 近代化 속에서 公高한 共同體形成은 社會內 統合機能力의 增加
에 責任이 간다.
- ④ 近代化 進度에 맞추어 成長될 수 있는 共同體는 個構成員의
變化에 對한 適應能力에 딸린다.
- ⑤ 共同體의 力量은 外部挑戰에 反應으로 增加된다.



目 次

1. 序 論	7
2. 依存理論의 主命題	10
3. 資料의 特性	18
4. 近代化 理論과 对照	21
5. 適用可能性	31
6. 結論：政策考慮事項.....	35

1. 序 論

現今 第三世界에 널리 알려진 所謂 “依存理論”은 開發途上에 處해 있는 國家가 어떻게 抵開發(underdevelopment)狀態에 있게 된 境遇를 說明코져 하는 理論이다.

理論家들의 出版物에는 그들이 研究對象으로 삼았던 特定地域의 開發에 關한 利益이 多分 內포되어 있지만 依存理論은 經濟成長 「모델」과는 嚴格히 區別되어 다루어져 왔다.

下記에서 자세히 說明되겠지만 依存理論은 史上 植民經驗을 했던 第三世界 國家群이 왜 發展에 全力을 傾注하는데도 不拘하고 抵開發國으로 長期間 또는 거의 無期限으로 남게 되었는가를 說明해 준다.

“데펜데 시스타”라는 依存理論家들은 上記觀察에 準하여 「抵開發狀態」란 經濟發展上 最終현상으로 간주하게 됐다. 따라서 抵開發현상은 國家가 先進産業國家로 發展하는 途中 거쳐야 하는 中間點이 아니라고 主張하고 있는 것이다.

同理論의 發상은 1949年 國際聯合의 中南美 經濟委員會(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Latin America) 事務總長, 「라울 프레비시」(Raúl Prébisch) 氏의 國聯報告書에 基因된다. 「中南美 經濟發展과 根本的 問題」란 題目으로 된 上 報告書는 1961年에서야 출판이 되었다.¹⁾ 以後 中南美의 諸 經濟學者들과 其他 第三世界의 學者들은 自身들의 抵開發 處地에 對한 究明을 하기 爲해 다투어 上 報告書가 提示한 近接方法을 導入케 된 것이다.

国聯 中南美 經濟委 (ECLA) 가 1961年 以後 發表한 여러 論文들과 依存理論의 추종者들에 자극을 입어 中南美 經濟學者들은 下記와 같은 決議文을 1965年 開催된 「멕시코」学会에서 채택하게 되었다.²⁾ 即,

外勢의 영향을 입은 大学教授, 教科過程, 研究計劃, 獎學制度 등은 産業의 技術導入 경우처럼 經濟學을 강의하는 分野에서도 否定的인 要素를 내포하고 있다. 특히 先進國家들의 理念 전파를 上記 教育手段을 使用하여 達成하고자 하는 抵意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中南美 經濟學者와 他分野의 學者들은 우선 우리 中南美 歷史를 再分析 및 解說할 必要性이 있는 것이다. 中南美 地域의 抵開發 연유를 다시 새로운 角度에서 理解하기 爲하여서는 革期的인 近接方法이 절실히 必要하다는 要指인 것이다.

이런 革期的 近接方法의 모색의 結果로 產出된 것이 現在 第三世界에 널리 알려진 依存理論이다. 따라서 當時 人氣가 있었던 美國의 開發理論家들, 「로스토토」나 「호스라이츠」 등의 敎訓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것이다. 依存理論은 中南美 土着性, 創意性을 내포하고 있는 同時에 한 學者의 研究努力의 結實이 아니고 中南美의 저명한 經濟學者들의 共同 作品인 것이다. 그들은 依存理論이 中南美의 經驗에 의거하여 生成되었지만 그 적용성은 亞州 및 「아프리카」에도 多分하다고 主唱해 왔다.

本稿에서는 上理論을 構築하고 있는 主命題를 소개하고, 理論의 當爲性을 뒷받침하는 經驗的 「데이터」(Empirical data)의 性格을 檢

討한 뒤, 近代化 理論과 對照하고 韓國의 適用可能性을 타진해 본다. 필자는 18年前 中南美 等地에서 流行하고 있던 言句들을 現今 韓國에서도 되풀이 하고 있음을 느끼고 있다. 即, 中南美는 近年內에 先進工業化하여 國民生活 水準이 많이 상승할 것이 期待된다는 것이다. 필자는 韓國의 經濟發展에 關한 資料들을 깊이 檢討하지 못했지만 한 가지 確實한 것은 中南美 諸國들이 18年만에 도 그들이 갈망했던 先進國家 對열에 서지 못했다는 事實이다. 필자의 思考로는 依存理論과 近代化理論을 韓國에 導入, 適用함으로, 여지껏 勘案하지 못했던 問題들이나 잠정적으로 存在하여 意識치 못했던 開發에 關聯된 問題들을 밝힐 수 있다고 추리된다.

現 급속도로 發展되고 있는 韓國의 經濟와 国力이 先進國이란 目標에 하루빨리 突入키 爲하여 發展에 障礙가 되는 要素들을 수시 적 발하여 除去시켜야 됨은 再言을 要하지 않는다.

2. 保存理論의 主命題

理論의 起點은 一國의 經濟體制가 國際經濟秩序에 規制를 받고 있다는 前提로 始作된다. 全體的인 概念에 依拠된 上 前提는 一國의 經濟體制를 部分(part)으로 보고 全體인 國際經濟秩序에(whole) 支配를 必然코 받게 마련이란 것이다. 把握이 될 수 있는 國際經濟秩序(International Economic Order)의 存在를 認定하고 個別 國家의 經濟體制 및 秩序가 上記한 國際秩序에 종속하고 있다는 巨視的 理解方法은 開途上에 있는 經濟體制에 적용될 때, 再來式 近接方法에서 模索될 수 있었던 問題와 그 解決策과는 전혀 틀린 種類의 問題와 解決方法을 提示하고 있는데 本理論의 創意性이 있는 것이다. 例를 들자면, 再來式 理論들은 一國의 抵開發 理由를 그 國家의 內的 要素들, 即, 國民의 教育水準, 勞動力의 質, 企業精神, 利益추구의 動因 等의 欠乏에서 說明하고 있으나, 依存理論 主唱者들은 同理由들을 全體와 部分의 相互關係에서 찾고 있다. 特記할 것은 一國의 內的要素에 抵開發狀態에 關한 責任을 지운다면 開發을 計劃하고 있는 政策者나 社會의 지도자 立場이 自國民의 無知와 빈곤등을 한탄하는 否定的 姿勢에서부터 開發使命을 완수해야 될 것이다. 그러나 建設的인 事業은 신세타령으로 解決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다. 아무리 條件이 나쁜 條件속에서도 肯定的인 또는 좋은 點을 強調하는 것으로부터 “開發”이나 “發展”이 始作된다는 要旨가 依存理論家들의 主唱인 것이다. 中南美 경우를 보면 再來式 開發理論家들이 國民의 啓

으름과 利益追求의 動因 結핍(motiration)에 抵開發 責任을 지워왔다. 그러나 依存理論家들에 의하면 上記 지적된 理由는 無根하다는 것이다. 現實은 國民이 새벽 일찍 일어나 生計를 維持키 爲해 또는 자녀들의 學費를 마련키 爲해 저녁늦게까지 동분서주하는 것이다. 이들을 게으르다 또는 動因의 結핍이다 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란 것이다. 뿐만 아니라 事實과 相異한 根拠에 기초를 둔 再來式 開發理論家들이 考慮치 못했던 것은 自身들의 理論適用에 對한 結果인 것이다. 苦生을 하고 있는 國民들이 無識하다는 전제를 한다는 것은 결국 起立코저 하는 國民의 精神狀態를 더욱 抵調시키는 것이므로 發展을 시도하는데 아무 도움이 없다. 發展을 爲해서는 國民들의 不足한 點을 감싸주고 希望을 불어넣어 주는 格려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 依存理論家들의 論調인 것이다.

特定한 時点에서 一國의 經濟活動이 國際秩序에 종속된 狀態는 바로 歷史의 產物이란 點에서 檢討될 수 있다.

(가) 植民史의 遺産

現 第三世界로 알려진 地域이 경험했던 植民主義의 形態나 內容이 均一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遺産도 同一치 않음은 勿論이다. 따라서 本稿에서는 中南美 諸國이 겪었던 植民史를 中心으로 하여 理論을 소개하고자 한다. 中南美의 植民時期는 「콜럼버스」가 大陸을 發見했던 1492年부터 被植民國이 獨立을 宣言하기 시작하기 직전인 1820年까지 約 300餘年間을 지칭한다. 이 期間동안 被植民地(co-

lonies)의 經濟活動은 重商主義라는 國際秩序에 依하여 規定된 規範內에서 展開되었음은 잘 알려진 事實이다. 前者와 後者와의 相關關係는 原資材의 探查로 始作되어 착취와 資材의 輸送, 그뒤 上資材는 製品이 되어 다시 植民地로 운반된 뒤 販賣되었던 것이다. 源資材가 植民國의 都市(metropoli)로 운반될 때는 거의 무상으로 가져갔고 完製品이 되어 被植民地에서 販賣될 때는 独占權을 發揮하여 高價로 賣買되었음은 이미 잘 알려진 事實이다. 따라서 當時의 經濟構造(投資, 雇傭, 市場變形等)는 上記한 中心(center)과 외각(periphery)間的 國際經濟 關係가 規定했던 것이다. 이런 不平等한 交易의 結果는 資本과 産業技術이 中心에 集中하게 되었고 被植民地域에는 편협한 單一品目 生産을 爲주로 한 “限定된 經濟體制”(Enclave Economy)가 公고해졌던 것이다. 大多數에게는 이런 體制가 빈곤과 抵禦 劣性を 高調시켰을 뿐 經濟活動에 종사한 代價로 오는 分配는 “生存 以外 아무런 혜택도 없었다. 依存理論家들에 依해 數次 言及되어온 實例를 들어보겠다.

17世紀와 18世紀의 大英帝國은 植民地인 「자마이카」에 사탕수수 를 재배케 하였고 產物인 설탕을 英國으로 수송하여 完製品인 「럼」 酒를 만들어 다시 「자마이카」로 輸出하였던 것이다. 이런 交易의 結果는 資本과 技術이 英國에 集中토록 되었고 한편 植民地였던 「자마이카」에 大農制度, 單一農產物 재배 및 內資의 축척이나, 投資할 에 금이 고갈케 된 現象등이다. 特記할 것은 上制度의 副產物로 무지했던 「자마이카」 土着人은 「럼」을 마시게 됐고 數없는 알콜 중독

자가 出現하게 되었던 것이다. 福祉事業도 염두에 없이 英國은 上「中心-외각」關係를 고질화 시켰고 이에 準하여 「자마이카」는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抵開發 상태에 놓여 졌었다.

依存理論家들의 주장은 上記묘사한 國際經濟關係가 19世紀初 獲得한 被植民地의 政治獨立에도 不拘하고 變化없이 持續되고 있다는 것이다. 民族主義에 휩싸인 獨立 투사들은 經濟秩序의 崩壞를 도리어 念慮했고, 從屬性에서 탈피할 国力이나 自主性的 결합이 共通으로 있었던 點을 지적하고 있다.

中南美 開發史에서는 19-20世紀에 2가지 重要的 變化를 觀察할 수 있다. 첫째는 美國이 古時的 中心이었던 北歐 열강들(西班牙, 포르투갈, 불란서 및 英國)을 代身하여 새로운 中心役을 하는 國家로 登場했고, 둘째는 重商主義란 國際經濟秩序가 産業資本主義라는 새로운 形態의 秩序로 變모한 것이다.

興味롭게도 依存理論 主唱者들은 上記한 國際經濟秩序의 變化가 植民當時의 依存關係에 미치는 影響을 極小하다고 믿고 있는 것이다. 換言한다면, 帝國主義나 軍國主義의 정신을 基調로 하는 西, 英 等の 中心에서 共和, 民主主義를 原則으로 삼고 있는 美國의 中心으로 轉向된 事實이나 또는 慾心 많았던 重商主義에서 工業資本主義로 國際秩序가 바뀐것이 植民主義 유산인 依存制度에 크게 影響을 끼치지 못했다는 것이다.

(나) 工業資本主義下에서 經濟依存 關係

植民當時 起立된 依存關係가 現今에까지도 고질화되어 持續된다는 理論을 견지하면서 依存理論家들은 所謂 南美와 北美의 複雜하고 必然의 것인 經濟依存形態의 確認에 나섰다. 그들에 의하면 부유한 北美와 貧困에 허덕이는 南美와의 依存關係는 相互의 生存을 保有키 爲해 必要不可決한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植民當時에는 從屬關係가 軍事·政治的인 武力에 根拠하여 持續되었으나 現今 國家의 獨立性を 지켜가며 維持되는 上 關係는 중계役을 하는 ① 多國的 企業들이나 ② 國際機構(특히 世界銀行과 IMF), 또는 ③ 貧困한 國家內 命脈을 維持해 왔던 傳統的 부유층(中南美 경우는 地主를 中心으로 함)을 앞세워 종용해 온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上記한 中間 機構들은 貧困에서 脫出코저 발버둥치는 第三世界의 經濟發展計劃 全部를 指揮하거나 아니면 一部를 確定시키는 役을 한다고 한다. 이에 準하여 尤물로 받은 單一品目 生産構造를 지닌채, 抵開發國은 工業化 運動에 參與토록 方向을 提示받은 것이다. 工業化가 되어야 先進國의 産物을 消費시킬 수 있는 市場의 役을 지속할 것이며, 原資材의 輸出을 保障받게 되는 것이다. 國土의 大部分이 農地로 개간도 되기 前에 工業化에 国力을 소모케 되고 값비싼 先進國의 産物 消費品의 사용을 強要당하는 立場으로 몰린다는 것이다. 이런 불명들은 輸入代 替 商品生産을 爲한 工業化를 서둘러서 解決토록 권고 받았고, 이를 爲한 外資導入, 外貨借款, 外國投資등으로 막아져왔던 것이다. 특히 外貨獲得을 爲해서는 抵開發國의 産物이 先進國으로 輸出되어야 하므로

新設되는 産業施設이나 分化가 先進國의 消費物에 맞추어 進行되므로 相互依存度는 더욱 高질化된다는 點이다.

그러나 中南美의 經濟史는 輸出振興을 爲한 努力은 수포로 돌아갔음을 證明하고 있다. 理由는 工業化 및 輸出振興을 通해 獲得된 外貨가 고용을 增大시킬 수 있는 國內産業에 投資되어, 貯蓄을 高調시키고 內國市場의 需要增大에 기여치 못했던 것이다. 輸出産業은 失業者를 적절한 水準까지 吸收치 못하게 되었던 것이다. 마치 植民當時 強要되어 開發시킨 편협한 原産物 爲主의 經濟體制 모양과 유사한 현상을 輸出産業을 中心으로 다시 觀察하게 되고 말았다. 이런 현상에서 依存理論家들이 귀결하게 된 것은 ① 外貨의 海外도피, ② 再投資 政策의 失敗, ③ 外貨가 內國 資本에 끼친 否定的 영향 等이다. 理論의 主心이 되고 있는 “非資本化현상”(De-capitalization) 이나 “非國家的현상”(De-nationalization)에 그들 研究가 초점을 맞추고 있게 되었다. 國際秩序로 알려진 産業資本主義는 日本을 포함한 先進國을 더욱 부유케 만들었고, 第三世界는 先進國과 高질화된 종속의 結果로 貧困을 탈피치 못하고 抵開發 狀態로 남아있게 되는 結果를 초래케 했다는 것이다. 開發國의 經濟가 國際秩序에 聯立 (“hookeel”) 되고 資本과 技術이 先進國에 물리고 있는 形便下, 理論家들의 分析은 上記한 要素들이 어떻게 開發國 社會體制內에 영향을 입히고 있으며 政府의 行態가 어떤지에 興味를 돌리고 있다.

(다) 依存의 社会的 층級

理論家들의 争点を 論理的 側面에서 分析해 보면 단순하기 짝이 없다.

先進国 都心(metropoli)에 앉아있는 多国籍 企業家들이나 開途国에 國際機構를 通하여 影響力을 發揮코저 하는 人事들은 開途国 現地に 그들과 同調하는 協助者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前提인 것이다. 理論家들의 감정적인 언사를 빌린다면, 特定한 開途国内에서 外勢와 協力하는 계층을 “외각의 下部階層”이라고 명명하고 이들의 指揮 및 指示者들을 “中心의 主人”(master)이라고 일컫고 있다. 이런 「主-從」關係의 形成이 바로 依存關係를 高질化 시키고 있는 社會學的 要因으로 지적되어 왔다. 所謂 “下部階層”들의 性分을 分析해 보면 거의가 輸出入業者가 中心이 되어 있고 때로는 軍部의 人事나 知識人, 및 傳統的으로 富를 享유해 왔던 地主들과 얽혀져 있다는 것이다. 이런 特殊層 人事들은 個人生活 行態에서도 土着的인 古由의 風習과 離脫하고자 하는 반면 都心(metropoli)의 「主人」들이 하는 짓은 본따려 하는 것도 特殊性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이들은 必要以上の 努力을, 外國語習得과, 「위스키」의 攝取 및 골프같은 運動을 배우는데 소모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自身들의 富유한 生活維持를 爲해 國家的 良心이나 內國資本 形成等に 支援을 거부해 왔던 것도 特徵이라고 한다.

가장 심각한 問題는 上記 묘사한 特殊層이 外國 先進國의 「主人」들의 下命을 받들고져 開途國 政府에 影響力을 發揮코저 할 때이다.

中南美의 事例를 보면 民族精神에 基調를 둔 政府전복이 上記한 「主一從」關係에 立脚하여 無數히 많이 시도되었던 것이다.

開途國의 國家收入이나 政府의 租稅源泉이 大部分 輸出入業者에 달려 있으므로 政府의 政策들이 上記한 特殊層에 惠拂을 주는 方向으로 항상 기울어져 왔고 同時에 內國서 自立하려는 團體들에 對해서 가혹한 抑壓을 해온 것도 特徵인 것이다. 特記할 것은 市場經濟를 바탕으로 하는 資本經濟體制下, 勤勞者의 權益을 保障토록 하는 견제力(countervailing forces)을 싹트기도 前에 눌러버리는 것이다. 이런 현상을 “內的 植民主義”로 理論家들은 概念化한다. 上記한 社會經濟 條件에서 起立된 政府는 후원의 원천이 內國의 지원에 依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政府後援 源泉까지 外國에 依存되어 있는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이들이 가장 겁을 내는것은 國民들로부터 政治性을 喪失하는 것이 아니고 外國의 “主人”이 後援을 단절하거나 支援을 중단하는데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3. 資料의 特性

上記한 바와같이 巨視的이고 大規模的으로 成立시킨 依存理論은 第三世界로 알려진 開途國에 타진될 수 있도록 部分的인 假說을 많이 產出했다. 가장 많은 假說을 產出케 한 分野는 個別 開途國의 植民史를 다시 解說하는 部分과 現今 行動되어 있는 中心의 産業資本主義에 開途國 經濟가 어떻게 支配되고 있느냐에 있다. 一括的으로 特定形態의 依存樣狀을 제시할 수 없으므로 個別國마다 제가끔 依存形態의 묘사에 많은 學者들이 參加했다. 그러나 가장 「데이타」의 貧困을 느끼는 部分은 經濟的 依存關係가 미치는 社會, 政治的 충격이다. 特히 問題의 性格上 現第三世界 形便으로 보아 신빙성 있는 「데이타」를 얻기가 매우 어렵게 됐다.

依存理論을 主唱해 온 代表的 學者의 一人인 「데일 존손」博士는 「데이타」를 얻기 爲해 下記 項目들을 考慮해야 된다고 했다.³⁾ 即,

I. 다음의 事由로 貿易의 침체

- ㉠ 主輸出品의 國際需要 底下
- ㉡ 輸出品의 量과 價格의 漸進的 下落
- ㉢ 輸入品の 價格이 急激히 上昇

II. 國際収支의 高질적 赤字

- ㉠ (I)에 열거된 理由로 發生되는 경우
- ㉡ 國際「서비스」에 支払되는 支給費의 急進的 上昇

㉔ 海外로 資本의 반출

II. 下記事項에 依해 경직화된 輸入構造

㉕ 新設된 工業에 要하는 原資材나 半製品 輸入必要性

㉖ 農業의 위기로 因하여 食品輸入의 必要性

㉗ 高질적 外換不足

IV. 漸進的 非資本化(De-capitalization) 현상

㉘ 産業主의 外国化(De-nationalization)

㉙ 外国企業運營에 對한 權利金의 上昇

㉚ 利益金의 外国運送

㉛ 外貨에 對한 利子の 送金

V. 政治 依存度 上昇

㉜ 國際秩序의 構造와 内国「엘리트」 構造의 유사성

㉝ 民族主義에 위협을 받고 있는 内国「엘리트」의 海外依存度

㉞ 特定히 맺어져 있는 内국企業家와 外国投資人의 關係

㉟ 外国人 및 外国投資人이 獨單으로 향유하고 있는 權力

㊱ 多国籍 企業, 國際機構, 外国주둔軍이 차지하는 權力

㊲ 内국軍과 外国軍의 유대關係

上記한 資料項目의 半 程度라도 入手한다는 것은 무척 어려운 課題임이 明白하다. 따라서 學者間에 流行하고 있는 研究形態는 經濟依存에 關한 몇가지 資料를 제시한 뒤 「테스트」를 할 수 있는 특

定한 가설을 제공하는 形態다. 예를들면 「 멀 · 크링 」教授는 “ 中南美의 政治不安定은 植民經濟體制의 存統現實과 中南美諸國의 法的 主權 사이에서 生成되는 마찰에 基因된다 ” 는 가설을 제공했다.⁴⁾ 言及해 보면, 植民當時의 依存經濟體制는 항시 主權國이 要하고 있는 自主行動에 反해 왔다는데 政治不安性이 있다는 것이다.

4. 近代化 理論과 對照

中南美에 깊은 뿌리를 둔 上 依存理論을 批判없이 導入適用하기는 매우 危險한 일이다. 따라서 本章에서는 批判의 感覺을 높이기 爲해 近接方法이 相異한 理論과 對照해 보기로 한다.

「데이빗 앵터」(David Apter) 教授는 오래동안 中南美와 「아프리카」의 諸國을 觀察한뒤 그의 代表作 “選擇과 安配政治”(choice and the Politics of Allocation)에서 第三世界 社會變遷을 說明한다는 理論들의 主要點을 다음과 같이 評했다.⁵⁾ 即:

社會變遷 理論家들은 進歩를 추진하는 勢(force)가 歷史를 通해 作用하고 있다고 믿고 이 勢가 이따금 악마와 같은 歷史의 人物이나 制度에 걸려 進보가 중단되나 끝에 가서는 勝利를 할 것이라는 大前提가 있다는 것을 믿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의심없는 讀者들을 속일수는 있으나 實은 “進歩勢”(force of progress)란 史的 現實이 아니며 分析力이 미약한데 그 出處가 있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앵터」教授는 “選擇의 構造理論”(the structural theory of choice)을 소개하게 된 것이다. 同理論은 開發(development)과 秩序(order)關係를 解決하고 理解하는데 目的을 두고 있다. 換言한다면 開發이란 기존 질서의 變化를 意味하고 또 秩序란 開發에 따르는 變化에 適應해야 되므로, 現 開發國이 當面하는 가장 큰 問題는 어떻게 必要한 開發을 추진하며 秩序維持를 하는데 있느냐는 것이다. 따라서, 開發을 저지시키지 않는 秩序와 後者를 해치지

않는 發展型을 同時에 滿足시킬 수 있는 社會制度를 構想키 爲한 것
에 理論起立의 초점이 있다고 한다.

理論의 始發點은 開發의 定意를 “選擇의 擴張”(Expansion of
Choice)에 둔 것에 있다. 다시 말하여 個人이나 團體의 選擇의 여
지가 얼마나 폭이 넓으냐에 따라 發展의 度가 測定되는 것이다. 편
협한 經濟發展, (國家로 表現되거나 또는 個人 生活水準의 上昇) 概
念이나 社會, 政治發展을 部分的으로 考慮치 않고 同理論의 著자는 社
會의 모든 發展이 “選擇여지의 폭”이란 包括的 概念을 使用한 것
이 開發理論에 크게 기여하게 된 것이다. 이런 發展에 關한 概念化
에 이어 秩序(order)에 關해서는 古典社會學者의 傳統에 맞추어, 特
定社會에서 支配되고 있는 規範(Norms)과 實構造(structure)가 符
합되는 狀態를 意味하고 있다. 「맑스」의 言語로 表現한다면 上部構
造(superstructure)와 下部構造(substructure)가 符合되는 狀態
인 것이다. 따라서 開發을 選擇여지의 擴大라면 秩序란 選擇여지가 어
떻게 分配되어야 한다는 믿음(beliefs)과 事實上 選擇의 여지가 社
會에 分配되어 있는 現實과 거의 符合되어 있는 狀態인 것이다. 예
를 들면 經濟開發은 社會의 構造的 變化이고, 開發 即 變化는 富의
增加로 結果가 초래되고 (GNP 上昇), 이는 富가 어떻게 社會에서 分
配되어야 한다는 規範 또는 믿음에도 變化를 야기케 한다. 兩要素가
잘 부합되어 變化를 이르킬 때 곧 이는 秩序(order)로 表現될 수
있다는 것이다.

上記한 概念을 바탕으로 하여 「엠펜터」教授는 ① 一般社會에서의 規

範(norms) 과 構造와 ② 上記要素가 政治制度에 反映되어 政治體制內的 規範과 構造關係를 모형으로 제시했다. 그러면 選擇의 餘地를 規定할 수 있는 變數들은 무엇일까?

① 社会的 次元에서 選擇의 餘地가 分配되어야 된다는 規範의 變數를 安配의 衡平(equity of allocation)이라고 밝히고

② 構造的 現實, 即 上規範에 依拠하여 事實上 社会的 役(roles)이 分配되어 있는 變數를 「安配」(allocation)로 規定했으며,

③ 一般社会에서 支配되고 있는 規範的 衡平原則이 政治規範(political norms)으로 反映될 때는 權力으로 向한 通行路와 治政에 関한 原則(principles of access and governance)으로 반영된다.

④ 一般社会的 安配(allocation)構造는 政治體制內的 参与構造로 (political participation) 나타난다.

⑤ 一般社会에서 支配되고 있는 規範이나 構造, 即 衡平和 安配에 関한 것이 政治體制(polity or political system)로 전달시키는 要因을 政治情報라고 한다. (political information) 後者は 다음의 三項으로 觀察될 수 있다. 即

(가) 大衆政治 情報("populist") : 이는 大衆이 어떻게 政治制度에 그들의 믿음(beliefs)과 安配에 関한 事項을 反映시키고저 하는 情報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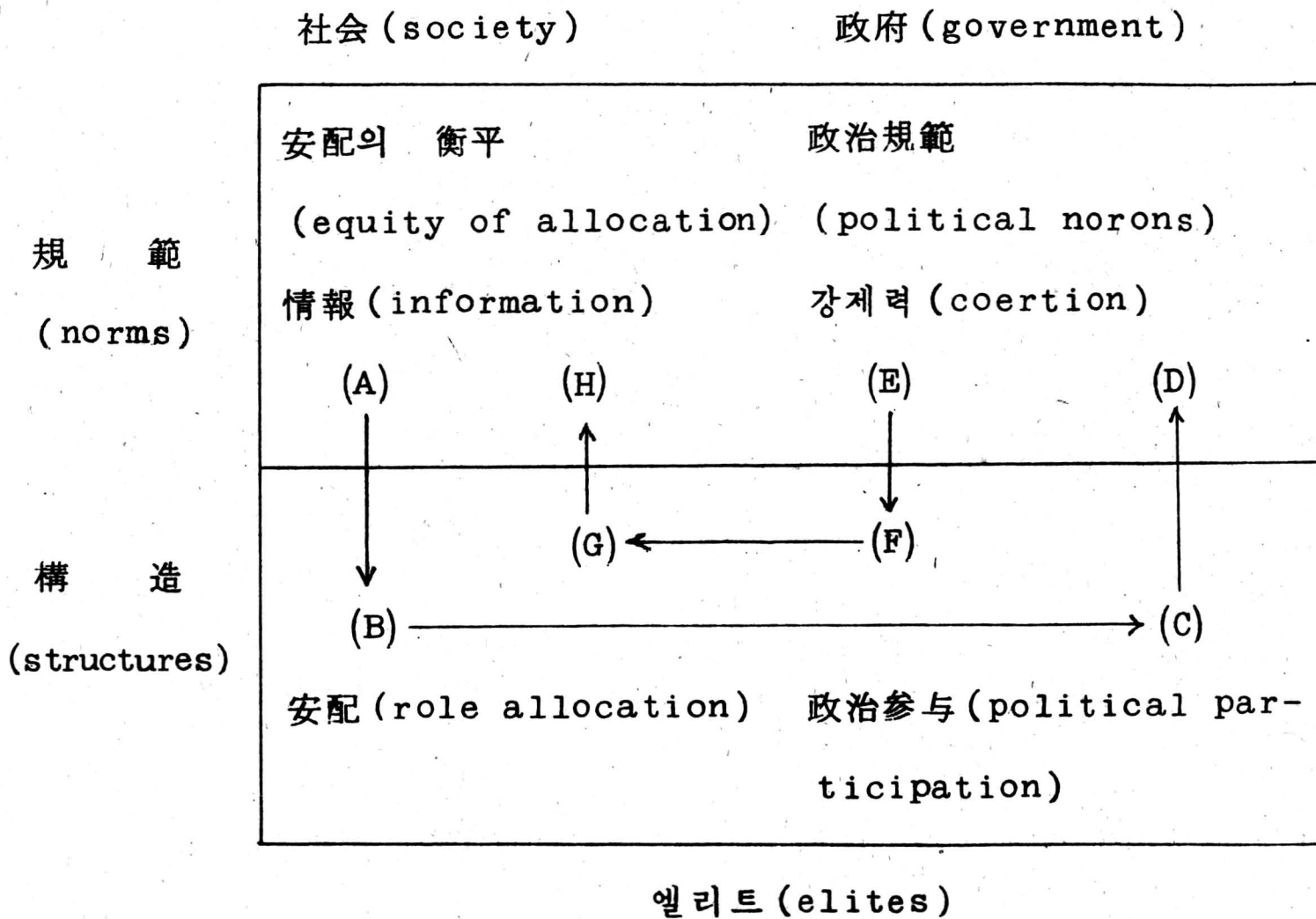
(나) 組織된 利益에 関한 情報("interest") : 社会內的 既存하는 利益團體(宗教團體를 包含)가 그들의 利益追求에 결합하는 內容의 情

報를 意味한다.

(다) 專門職業團體의 情報 ("professional") : 軍, 科學者등의 專門
 家들이 投入시키는 情報이다.

⑥ 政治體制가 一般社會에 産出하는 要因을 "強制力 發動" (coe-
 rcion) 으로 본다.

上記한 六個 變數를 도표로 表示하면 다음과 같다.



(政治構造理論 - the structural theory of politics)

興味로운 것은 上 模型의 適用範圍이다. 「엠펜터」教授는 現第三世界
 現實이 많은 人口가 政治參與者로서 資格이 없든가 아니면 그들의 參

与가 거부되어 있으므로 学者의 立場으로 (즉, 現實에 부합되는 모형을 산출할 의무가 있는 사람으로는), 모형의 適用範圍를 社会, 政府 및 엘리트(elites)로 局限시키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實 政治制度의 分析에서는 「엘리트」로 規定되지 않으면 分析의 対象에서 除外되어야 한다.

社会的 變遷을 傳統社会(traditional society)에서 近代化 過程(modernization)을 거쳐 工業化(industrialization)된 社会로 된다는 直線(linear)型으로 가상하고, 上變遷의 總체적 名稱을 開發로(development) 명명했다. 더우기 開發의 源泉은 人間이 自然(이는 社会的, 生理的, 心理的 自然을 包含함)의 主人이 될 수 있는 지식의 所持如何에 둔 것이다. 換言하면 工業化된 社会는 獨創的인 知識開發能力을 保有한 社会이고 近代化되는 社会는 工業社会로부터 開發된 知識을 導入하여 모방하는 社会로 規定되고 있다. 人類史가 갈망해 왔던 自由의 追求는 “選擇여지의 擴張”으로 概念化됐고, 同擴張은 人間이 獨創的으로, 特히 科学과 技術(science and technology)에 依存하여, 知識을 開發하는 能力에 달렸다는 前提가 支配하는 것이다.

上 前提를 一社会内の 社会階層(social stratification) 形成에도 適用하여 가장 支配的인 社会階級을 「理論層」(theory class)으로 지적하고 있다.

「엠티」教授의 理論에 對한 討議를 종말지우기 前 指摘해야 될 事項은, 氏의 政治制度(political system)에 對한 見解다. 開發의 秩

序를 연결하는 社会制度를 바로 政治制度로 밝히고, 秩序를 維持하며 (強制力の 適用) 開發을 도모하던지 (이 경우는 政治制度가 開發을 主導하는 경우임) 아니면 이미 變遷된 規範(norms)이나 安配(allocation) 關係를 政治制度가 所謂 政治情報를 樹立하여 混亂이 닥치기 前에 중용한다는 見解인 것이다.

上記한 点들을 考慮하여 同教授는, 「엘리트」와 政府關係에서 結束된 決定을 할 수 있는 機構(decision-making)에 参与(access) 原則에 수반되는 規範의 內容과 權力構造에 따라 다음의 制度可能性을 밝혔다.

「엘리트」와 政府關係에서 規範의 性格이 目的達成 狀態(end-states)에 치중되었으면(例: 福祉國家建立) 이를 完成者的 規範(consummatory)이라 稱하고 同要素가 目的達成을 爲한 道具的面에 치중되었을 경우(例: 福祉國家建立을 爲해선 國家를 增加시켜야 함) 이를 道具的 規範(instrumental)이라 稱했다. 또 權力構造가 階層的(hierarchical)이나 아니면 「피라미드」(pyramidal)型이나도 變數로 考慮되어, 下記의 四型의 政治制度를 구상한 것이다.

- ① 動員制度: 完成者的 規範과 階層的 權力構造
(mobilization)
- ② 行政官庁的 制度: 道具的 規範과 階層的 權力構造
(bureaucratic)
- ③ 神性制度: 完成者的 規範과 「피라미드」型 權力構造
(theocratic)

④ 和解制度：道具的 規範과 「피라민」型 權力構造

(reconciliation)

「엠펜터」教授의 特異한 가설은 近代化되는 社會의 個人 行態에까지 言及되어 學界에 잘 알려진, “近代化 進前에 比例하여 부루조아 階級의 급증(umbourgeoisement)과 工業化에 잇따른 급진파(radicalization) 현상의 出現” 등은 第三世界 여러 곳에서 「테스트」된바 있다. 그의 해묵은 가설을 요약해 보면, ① 工業化 현상이 增加됨에 따라, 決定責任者들은 더 많은 情報가 要하게 되고, 가속되는 近代化 현상은 政府의 強制力 발동의 必要性이 增加된다. 또 ② 더 많은 強制力을 使用하면 더 적은 情報가 決定責任者에게 온다. 등이다.

上記 소개한 두가지 理論을 对照하여 보면 第一 먼저 指摘되어야 할 事項이 理論著者들의 價值觀이다. 第三世界 學者들은 後進된 그들의 國土에서 肯定的인 要素들을 發見코져 入手할 수 있는 史的 資料를 蒐集하여 이를 自主性和 民族主義(nationalism)를 主心으로 하여 理論을 展開시킨 것이다. 自主性和 民族主義가 거센 外風으로 무수히 짓밟힌 歷史의 資料를 가지고 歸結하게 된 것은 아무리 親切한 外勢도 결국 최악의 경우는 그들의 利益追求가 우선된다는 點을 指摘하고, 꺼져가는 촛불과 같은 自主性을 살리기 爲해 이를 거의 낭만적으로 表現하게 된 것으로 思慮된다. 即, 歷史의 흐름을 善人(自主民族主義)과 惡人(外勢)의 鬭爭으로 보고 끝에가서는 善人이 이긴다는 調의 解說인 것이다.

한편 「엠펙터」教授는 美蘇間의 競争을 勘案하고 第三世界의 不安을 最大利用하려는 蘇의 잠식의도를 좌절시키는 것은 第三世界를 安定 (秩序維持) 시키면서 發展케 하는 抵意가 있는 것이다. 安定을 爲해서는 現存하고 政府를 正統하다고 보고 政府와 「엘리트」의 相關關係를 가장 危險한 不安의 源泉으로 본 것이다. 그의 理論을 한 命題로 줄이면 「엘리트」間의 安配가 衡平할 때 秩序있는 發展이 온다는 것이다. (Equity of allocation brings orderly development)

이런 價值觀의 比較를 通하여 韓國의 學者들이 얻을 수 있는 것은 依存理論의 效用限界線인 것이다. 韓國의 立場은 自主性的 成長을 爲해 無分別한 外勢배척을 주장할 수 없는 立場이고, 特히 四強의 힘이 교차하는 분기점에 있는 現實로 보아 배척을 한다해도 實現可能性이 極히 희박한 立場을 감안해야 될 것이다. 特히 科學에 對한 認識이 얕은 社會에서 依存理論이 發揮할 수 있는 不安造成의 要素도 있어서 안된다. 外國學者의 理論을 導入하는 立場에서 前提나 著者의 價值觀이 우리와 符合치 않는다고 理論全體를 效用價值가 없다고 일축해도 안된다고 思慮된다. 嚴密이 檢討를 하여 우리가 使用할 수 있는 部分만 추려 適用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할 수 있겠다. 依存理論의 適用可能性을 타진하기 앞서, 먼저 지적한 同理論의 內的論理에 評을 綜合해 보겠다.

論理의 비약이 된 部分은 첫째, 依存理論家들이 斷定的으로 내린 植民當時의 依存이 現속에까지 持續된다는 部分이다. 이 命題가 適用될

수 있는 地域을 中南美를 爲始하여 亞細亞 및 「아프리카」全地域에
연장시킨 것은 비약이 아닐 수 없다. 各地域마다 事實調査를 通하여
確認되어야 알 수가 있겠지만, 皮상적인 觀察을 通해서도 알 수가 있
는 것이다. 卽 많은 第三世界 國家群들이 国力伸長의 努力과 더불어
地域協力 機構를 통한 多邊化 運動을 통해 一辺倒 依存에서 탈피하
고 있는 事實을 指摘할 수 있는 것이다.

둘째는, 多国籍企業이나 國際機構의 役割을 單純히 中心의 利益을 爲
한 活動에 局限시킨 것은 論理의 비약이 아닐 수 없다. 資本을 많
이 投入시킨 株主의 力量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나 資本과 經營의
分離에서 오는 效果를 抵評價하는 것은 事實과 거리가 멀다. 開途國
의 資本과 技術의 必要性은 항상 있었던 것이고, 同地域의 開發目的
과 相反되는 주주의 利益追求만이 具現된다는 것은 더 研究가 되어
야 할 것이다.

셋째는, 上記한 二種의 命題를 基調로 하여 社會學的 面에 반영시
킨 「主-從」의 命題이다. 卽, 經濟的 依存現實이 社會的으로 반영이
될 때 반드시 「主-從」關係로 存続한다는 것이 論理的 비약이다.
國際經濟 關係가 依存으로 開始됐다 해도 반드시 下命을 따르는 從
의 關係로 남는다는 것은 現 石油를 生産하는 中東의 여러 產油國
과 第一世界와의 關係를 中心으로 否認될 수 있다고 하겠다. 「OPEC」
產油國의 油價引上은 産業資本國과 對等關係 以上の 效果를 發生
한 것은 周知의 事實이다.

넷째로는, 上 「主-從」關係가 미치는 政治的 충격에 있다. 産業資

本國의 投資人들이 政治的인 壓力을 加할 生覺으로 적은 利益追求에
맹안이 되어 政治的 不安을 造成한다는 것은 理解가 困難하다. 그들
의 投資를 保護하기 爲해서는 加급적 安定政策에 協調를 하지 않고
不安을 조성하는데 기여한다는 것은 事實과 얼마나 가까운지 궁금하
다. 前章에서 言及된 바와같이 政治的 충격에 關한 事項은 實「데이
타」가 무척 회박하므로 確言짓기가 힘들다.

最近에 發表된 依存理論의 批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⁶⁾ 即,

“나의 主批判은 依存理論家들이 一般的으로 國際關係의 制度가 거
칠 수 있는 影響력을 過大評価한다는 点이다. 이것은 勿論 強大國의
勢力이 開途國에 影響력을 입히지 않는다거나 또는 上影響力의 結果
로 開途國의 社会内 階層形成에 影響을 입힌다는 것을 否定하는 것
은 아니다. 다만 依存理論家들은 第三世界의 事態를 國際秩序에 全部
責任을 돌린다는 点에 모순을 지적하고자 할 따름이다. 民族主義者를
자처하는 그들이 自身들의 歷史를 제대로 解釈못한다는 「아이러니」
를 지적했을 뿐이다.”

上記한 論理의 비약과 비판을 감안하고 同理論이 韓國에 適用될수
있는 部分과 可能性을 타진코져 한다.

5. 適用可能性

中南美의 經驗을 토대로 하여 展開된 依存理論을 適用하기 前 밝혀야 될 點은 兩地域의 틀린 點과 유사성이다. 特히 中南美에서 強調되고 있는 非開發(undevelopment)概念은 抵開發(underdevelopment)과 分明히 區別되어 왔고 이는 韓國의 背景과 相異한 點에 起因된다. 그들은 國土의 大部分을 非開發시켜 놓고, 마치 開發이 始作된 것 모양 理解하는 矛盾性을 지적해 왔다. 中南美는 豊富한 資源과 廣大한 領土內 小數의 人口密度를 가졌으므로 國民들이 받는 生活苦는 韓國과 比較도 안될만큼 적다. 그들의 開發事業은 內國의 資源과 이의 効用있는 利用으로 力點이 주워지기를 많이 希望해 왔다. 이에 反하여 韓國은 狹소한 領土에 많은 人口와 더불어 單一資源(例: 石油, 커피, 등) 生産이 되어오질 않았다. 韓國은 "샘플" 國으로 많은 資源이 조금씩 生産되어 왔던 點을 지적하고자 한다. 豊富한 資源을 가졌던 中南美는 歷史의 희구한 運命을 맞아 팽창되는 重商主義와 後日 産業資本主義에 聯關을 갖게 된 것이고 따라서 先進國이 될 수 있었던 여러 機會를 포착하지 못하고 現抵開發國으로 남게 되었던 것이다. 韓國은 地政적으로 強大勢力의 市場이 되어, 오래 前부터 外國에 安保, 資本, 技術 등을 依存하지 않을 수 없었던 點은 周知의 事實이다.

따라서 韓國과 中南美가 共通으로 經驗했던 點은 兩地域에서 開發의 「이니시아티브」를 當初부터 쥐지 못했고 따라서 여러 開發의

方向이나 指標를 충분히 實驗하여 適用치 못했던 點이다. 1945年까지 韓國은 日本의 植民地下 충분한 開發에 對한 檢討조차 못했으며 開發의 概念도 협소한 地域과 多數人口 때문에 非開發의 開發이 아니라 事實은 開發의 概念이 곧 國民生活水準의 向上으로 밖에 理解될 수 없었다.

文化圈서부터 史的背景에 이르기까지 相異한 點이 많으나 依存理論의 適用可能性 檢討를 爲해 上記以上 더 資料提示를 望겠다. 本稿에서는 大略하여, 어떤 理論의 要素가 適用됨으로 效果있는 開發의 結果를 얻을 수 있는지 檢討하는 것이 目的이기 때문이다.

依存理論의 適用可能性은 韓國의 植民史의 解說에서 먼저 檢討되어야 하겠다. 20世紀에 들어와 日本의 統治를 우리 歷史의 수치로만 생각하여 加급적이면 잊어버릴려는 경향이 있고 따라서 多樣한 解說이 學者들에 依해 產出되지 못했던 인상이다. 政治的 側面으로 보아 單純히 主權의 喪失이란 解說의 次元에서 떠난다면, 同 喪失이 어떠한 經濟的 結果를 초래했는지 嚴密히 檢討되어야 한다. 皮상적인 觀察로써는 추리될 수 있는 것은 오랜 期間동안 植民狀態에 있으면 반드시 制度라는 것이 確立되어지는 것이다. 어떤 植民國도 많은 軍을 상수시켜 항상 被植民國의 活動을 감시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被植民國의 國民들에 流通할 수 있는 制度의 起立과 이의 견고성이 植民國의 最大利益이 아닐 수 없다. 依存理論이 제시한 上 制度는 重商主義란 정신에 基調를 둔 制度들이다. 日本이 韓國으로부터 資源을 長期間 착취할 수 있었던 制度와 특히 이를 도울기 爲해 生

成되었을 協助者들의 社会成分이 어떠한지 研究의 좋은 対象이 될 수 있다. 勿論 韓國의 傳統的 부유층(例:地主)이 그들의 財源을 지키고져 어떤 社会的 양상을 보였는지도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1945年 獨立을 맞이하여 大韓民國이 建立되었고, 日本의 植民國이란 누명을 벗게됨에 따라 얼마나 植民當時 確立된 制度들이 崩壞되었는지도 事實調査를 通하여 밝혀져야 된다. 中南美의 依存理論家들의 주장대로 정말 政治的 獨立이 依存關係에서 벗어나는데 큰 도움이 없었을까? 確固한 「데이타」는 없지만 美軍政下에서는 傳統的으로 確立된 社会階層을 維持시키는 政策이 이행됐고 어떤 전격적인 變化는 없었던 것이 가장 근사한 事實의 묘사가 아닌가 한다.

그뒤 李政權이 樹立되고 農地改革을 비롯하여 独自の인 社会制度構築을 爲한 社会變遷을 主導하려고 했으나, 「6.25」戰爭으로 事實 終結되지 못한채 미루어져 왔고 戰後 試圖되었던 輸入代替 産業化 努力을 어떤 尺度로 봐도 成功된 것이 아님은 周知의 事實이다.

특히 1961年 以後 經濟計劃은 輸出産業의 發展을 爲하여 外資導入, 技術導入, 外国人投資등이 정기적으로 포함되어 왔다. 이의 結果로 國民의 生活水準과 國富의 增加가 보도되어 왔다. 이를 미루어 보면 우리 經濟가 現行되고 있는 國際秩序에 전혀 依存性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무척 힘들다. 學者들의 意見은 依存自體를 탈피한다는 것은 非現實的이고 또 바람직한 것은 아니므로 一辺倒 依存關係의 危險性을 지적해 왔고 따라서 對案으로 多邊化를 追求해야 된다는 理論도 많이 주장되어 왔다. 그러나 우리가 依存理論家들에 한번 더 귀를 기

을인다면 資本과 技術이 中心에 集中되는 현상을 감안할 수 있고 따라서 多邊化란 하나의 理想的인 方案이나 實로는 無意味하다는 結論을 얻을 수 있다. 特히 開途國이 가장 經濟發展에 必要한 資本과 技術은 中心에서나 찾을 수 있지 다른 第三國에 協調를 바란다는 것은 事實上 不可能한 것이다.

1970年後 급격한 韓國의 經濟成長은 저임금의 人力에 바탕을 두었고 따라서 성장의 惠沢이 均一하게 分配되지 않았을 可能性도 많다. 特히 輸出을 爲한 産業의 分化는 中心의 外國資本家 및 投資人事들과 緊密한 關係를 招來케 되는 것이고, 上 協力關係가 對等한 立場에서 進行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依存理論家들의 주장대로 必然히 「主-從」關係로 變할 것인지도 계속 學者들의 研究 對象이 되어야 할 것이다. 特記할 것은 그들의 關係가 經濟活動에 局限되지 못하고 政治分野까지 影響을 입혀 어렵게 獲得한 韓國의 主權, 自治權, 等に 影響을 입힐 可能性도 배제될 수 없다.

韓國風土에 依存理論을 成立시키는데 符合되지 않는 點은 單一民族에서 發生되는 特유의 共同體形成이다. 傳統思想에 대한 숭배와 이를 바탕으로 한 社會組織(例: 大家族制度)은 社會階層間 경고한 障礙物形成을 불허하고 있다. 이런 精神은 都市와 農村의 賃金이 世界어느 나라 보다 平準化되어 있고 再投資가 計劃에 따라 進行된 結果로 貯蓄性이 계속 상승하는 現實이므로 海外財産逃避나, 內國企業의 外國化 현상은 아직 觀察되지 않는 것으로 思料된다.

6. 結論 ; 政策考慮事項

特定社會의 構成員이나 指導者들의 希望 如何를 不拘하고 社會變遷이란 自然的으로 發生 進行되는 것이다. 開發理論을 研究하고 對照하는 目的은 結局 우리가 變遷을 事前에 展望하여 對備하는데 있는 것이다. 變遷의 奴隸가 될 것이 아니라 變遷을 主導할 수 있는 能力을 배양하는데 도움이 될까하고 下記를 政策 考慮事項으로 提案코저 한다.

(I) 共同體에 準하는 規範과 構造의 確固한 保護 및 構築

依存理論家들이 주장하는 “自主性”을 考察해 보면 그 內容에 對한 事項들이 제시되지 않았다. 外勢의 對照的 意味 即 反 外勢란 意味外에는 內容없이 使用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 그들이 우려하는 古風이나 傳統의 말살에 對한 위협감은 우수한 文化나 制度의 모방에서 오는 結果인 것은 틀림없다. 그러면 “우수성”을 犧牲하고 古風에 치우쳐야 할 것인가? 그렇다면 近代化의 全意味를 喪失함으로 開發과 自主性을 어떻게 選擇 및 調和를 지우느냐가 問題로 提起된다.

社會的 內容面에서는 同自主性이 特定한 社會構造로 등장하기 前에는 別意味가 없게 된다. 막연한 意味로, 政治的 主權, 確立, 經濟的 民族資本形成, 文化的 復古主義의 登場등으로 一貫性없이 “自主性”과 連結되어 使用되어 온듯하다.

筆者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견고한 共同體가 유지되느냐 아니냐가 自主性이 있는지 없는지를 規定하는 基準이 되어야 한다. 皮상적으로 보면 “우리”(we-feeling)라는 共感이 있느냐 없느냐로 自主性의 度가 定해진다. 構造的으로 보면 共同體內에서 發生되는 분규를 自體가 解決하고 그 決定에 結束되느냐로 볼 수가 있는 것이다. 共同體內의 分규나 見解의 差異가 外勢에 依해서만 조종될 수 있다면 이는 自主性의 喪失뿐만 아니라 共同體의 기반이 없는 社會로 結局은 外勢에 吸收되는 地境으로 되는 것이다. 따라서 筆者는 紛糾의 自體 解決 構造를 바탕으로 하는 構造와 同構造를 支配하는 規範(例를 들면, 正当性, 衡平原則)이 全共同體의 結合度를 높이는 限界內 開發 또는 近代化가 企劃되어야 한다고 본다.

(II) 社會와 個人의 同一性(identity)을 高調시키는 社會規範과 構造의 構築과 이의 連結性(continuity)의 持續

社會는 個性(personality)의 形成에 기여하고, 個人은 社會의 構成員으로 團體的 性格 規定을 지우는데 기여하는 相互依存關係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強한 共通性을 基調로 하는 團體는 構成員 個個人의 自身들이 屬해 있는 社會規範과 構造에 同一性을 유지함을 의미한다. 특히 同要素들이 近代化나 開發이 된다는 것은 既存 規範과 構造가 계속 變化된다는 動的狀態를 말하며 이의 結果로 招來되는 현상은 個人의 同一性(identity) 喪失에 있는 것이다. 同一性을 高調시키는 方案은 많겠으나 우선 變化되는 內容, 속도, 方向등을 正確

히 構成員에 알리고 그들이 特定方向, 內容에 同一性を 表할지 충분한 討論이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同一性向이 높은 既存 社会制度나 規範을 一方的으로 閉鎖하지 말고 持續시킴으로 共同體의 本質을 公고히 할 수 있다.

(II) 近代化 속에서 公고한 共同體 形成은 社会内の 統合機能力의 增加에 責任이 간다.

開發, 近代化 또는 社会變遷의 一面은 既存 社会構造의 機能變化 및 改造뿐만 아니라 없던 것이 새로 생기는 部分을 감안해야 된다. 없던 高速道路가 생기고 教育保險制度가 생기며 「다이야징」과 「조고약」에 依存되었던 国民健康이 複雜한 医療施設 등으로 바뀔 수 있다. 따라서 새로 生成된 構造가 機能을 發揮해 가며 調和 있는 統合을 이룩하려면 機能과 機能間的 競争은 있어도 마찰이 없도록 조절되어야 된다. 특히 政府의 強制力(coercion) 發動의 度가 지나치면 政府에 전달되어야 할 情報(political information)가 감소된다는 「애펜터」教授의 命題를 감안해야 될 것이다. 특히 資本主義를 基礎로 한 社会의 統合機構는 「市場」(market)임으로 市場의 機能이 圓滑치 못하게 하는 要素를 일찍 發見하여 조종해야 될 것이다. 특히 指摘할 것은 「市場」의 形態가 自由化됨에 따라, 依存 理論家들이 念慮했던 多国籍企業의 独占權이나 技術의 제패 등은 심각히 檢討되어 共同體의 成長을 為한 規範이나 構造에 反하지 않도록 保護되어야 한다. 막연히 外資, 外國技術導入의 전초전에 서있는 企業

家들의 民族感情이나 道德心에 依存하지 말고 制度的으로 견제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 企業家들의 利害得失이 公고한 共同體의 유지와 成長에 최소의 영향을 입도록 開發政策을 構想해야 되겠다.

(IV) 近代化 進度에 맞추어 成長될 수 있는 共同體는 個構成員의 變化에 對한 適應能力에 딸린다.

앞서 言及된대로 社會와 同一性에 依拠된 共同體를 形成하려면 外部로부터 받는 影響이 構成員 全部에 同時, 同量으로 露出되는 것이 理想的이다. 그러나 現實은 一部層이 먼저 外勢와 接觸이 있고 이의 消化方法등이 規定되어 教育을 通해 一般的 變化를 갖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教育 초점의 一部는 特種課題에 對한 理解를 띠나, 個人이 變化에 유연토록 適應性을 높이는 役을 담당해야 된다. 주입식 教育方法으로 權威意識의 배양을 하루속히 지양되어야 할 것이며, 막연한 復古思想의 強調는 被教育者의 思考意識을 경직화할뿐 適應에 力點이 줄어드는 것이다.

社會의 構成員이 同一性(identity)을 喪失치 않고 單一共同體를 유지하며 開發事業에 임하려면 特種의 思想이나 主義가 非機能的(dysfunctional)이 된다는 點을 지적하고자 한다.

(V) 共同體의 力量을 外部挑戰에 反應으로 增加된다.

特定한 社會가 共同體로 強해지는 과정은 同社會가 外部도전

에 여러번 接하여 力量을 적절히 使用해 보는 경험에 많이 依存된다. 勿論 자주 外部도전에 임하여 国力을 소모하고 정신적 피로를 초래하면 否定的 効果가 나나 적절한 이슈를 선정하여 構成員 全體가 힘을 뭉아보는 訓練이 반드시 必要的 것이다. 外部의 도전을 軍事的인 面으로만 해석치 말고 이는 輸出과 같은 經濟도전, 外交戰, 文化戰등 多樣한 도전으로 國民들에게 감안토록 해야 된다. 도전의 심각성은 항상 共同體 内部事情과 直結되어 있으므로 이를 언제든지 理解시킬 수 있다. 예를들면 輸出의 저하는 곧 國內의 고용문제와 直結되어 있으므로 企業의 經營者들과 勞組가 戰士가 되어 当面하는 도전으로 나타나고, 他分野에 從事하는 構成員이 이를 얼마나 지원하는지 觀察해야 된다. 適當한 時期에 올바른 "위기"를 조성 내지 活用하는 것이 共同體의 力量을 增加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의 이면적 意味는 同共同體 自體가 다른 國家들과 共生하는(特히. 平和共存) 方法의 開發에도 크게 도움이 되는 것이다. 特記할 것은 國際關係도 近代化나 開發의 進度에 따라 水準과 樣狀이 변모됨을 지적할 수 있다.

< 註 >

- ① Celso Furtado, Economic Development of Latin America (England: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0)p.152 fn.1
- ② André Gunder Frank & Arturo Bonilla, "Declaration of Latin American Economists" in Games D.Cockroft, A Frank and Dale G.Gohusm, Dependence and Underdevelopment(N.Y: Garden City: Doubleday Co. 1972) pp.305-319.
- ③ Dale L.Gahusm, "Dependence and the International system in Games D.Cockroft et.al.leds), op.cit pp.74-75.
- ④ Merle Kling, "Toward a theory of rower and political instability in Latin America" in Games Petras and Maurice Zeitlim, Latin America: Reform or Revolution? (N.Y:Fawcett. 1968) pp.76-93
- ⑤ David Apter, Choice and Politics of Allocation (Yale University Press, 1972)
- ⑥ Tony Smith, "The Underdevelopment of Development Literature: the case of dependency theory" World Politics Vol. 31(Jau., 1979) pp.247-248.

ABSTRACT

The Dependency Theory and social change in the Third World

(Odong Kim)

A review was conducted explicating assumptions on which the so-called, dependency theory was built. And they were contrasted against those of David Apter's structural theory of politics. From this effort it became apparent that the key difference rests in whether one believes the existence of "progressive force" in a history of Third World or not.

The theorists of dependency contend that nationalism achieved through self-reliant force shall overcome all the difficulties presented by foreign elements in escaping from underdevelopment, whereas David Apter points out that the belief in such a thing is the consequence of lack of analytical power on the part of scholars. While Dependency theorists have taken national pride and self-esteem as a top priority in formulating their arguments, David Apter seemed to have considered U.S. national interest in confronting power competition with U.S.S.R. in the Third World arena as a top priority. Apter's central

hypothesis, "equity of role allocation (among the elites) brings orderly development", implicitly suggests the support of existing order and political system in the Third World, which contradicts the demand for inevitable change in the area.

Korean situation calls for adopting both assumptions at the same time. The country's security depends on the U.S. and therefore her inevitable consensus with U.S. policies in the Third World let her develop all policies internal or foreign on the basis of stability and order. Interpretation of these varies among the different views, but also she faces with the reality of change. A moving equilibrium is thus desired at all levels and areas, if such equilibrium is maintained in "institutionalized" (stable) form.

On the other hand, the growing demand for independence, typically expressed in terms of recovery of traditional values has been real as the country's economic development has proceeded.

In view of the above facts, an effort was made to integrate both assumptions under a general guidelines. Although development of a general conceptual framework that can comprise the above assumptions is desirable, such work was not offered in this paper.